

양계산업은 미래 식량을 책임질 선두산업

김영환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주) 회장

- 1962.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1976. 신흥농장(산란계) 설립
- 1986.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주)/한국양계연구소 설립
- 1990. 양계 월간지 「양계연구」 창간
- 1998. 한양종계장/한양부화장 설립
- 1979~1982. 월간양계 제3대 편집위원장

1969년 11월에 창간한 월간양계가 이번 호로 창간 54주년을 맞이해 뜻 깊은 인연,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주) 김영환 회장을 소개한다. 올해로 83세를 맞이한 김영환 회장은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주)를 설립해 미국 하이라인 육종社로부터 산란원종계를 들여와 국내에 종계를 보급하고 최신 사육기법을 국내 농가에 전파해 국내 양계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일궈온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환 회장은 월간양계와의 인연도 깊다. 1979년부터 3년간 월간양계 제3대 편집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관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양정보와 높은 수준의 해외기술을 전달하며 60여 년간 양계산업에만 매진해 왔다. 창간호를 맞아 그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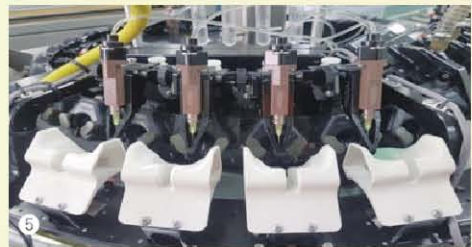
김영환 회장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계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월간양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주) 회장, 한국양계연구소 소장 김영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서울대 농대 축산학과)를 1962년에 졸업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서둔동 목장에서 부화기로 병아리를 부화했던 경험으로 초생추 육추·육성, 산란종계 사육을 실습했고, 대학 3학년 때 백색 단관 레그혼 병아리 200마리를 목장에서 사다가 손수 제작한 육추기로 육추, 사료배합물 작성, 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길렀던 일, 실제로 양계 경영의 진수를 터득했던 오봉국 선생님과 학창시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창시절 학업과 실습 경험이 시초가 되어 양계산업 진입에 뜻을 더욱 확고히 세우게 되었죠.

대학 졸업 후, 대한사료에 입사, 사료 포물레이션 작업을 연구하였고, 그 후 이계조 대한양계협회 前회장님의 천호부회장, 마니육종을 통하여 종계, 사육, 부화업무를 익혔습니다.

60여 년간 현재까지 현역으로 달려오셨죠? 그간 활동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금년 83세로 현재까지도 60여 년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6년 신흥농장 채란사업을 창업, 1977년 신흥부회장 창립, 1986년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주)와 한국양



- ① 농업회사법인 한국양계(주) 장수백산란농장
- ② 전자동화 친환경 사육시설
- ③ 병아리 성별 구별 작업
- ④ 손을 접촉하지 않는 종란 집란
- ⑤ 초생추에 동물복지형 적외선 디비커 사용

계연구소를 설립해 미국 하이라인 육종社의 한국대리점 계약으로 하이라인 브라운 원종계를 국내에 들여와 종계를 보급하고 있으며 최신 사육기법을 국내 농가에 전파하는 데에도 힘써왔습니다.

더불어 1990년 4월 양계 월간지 「양계연구」를 창간해 사육업과 선진국의 양계 사양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기 위해 해외기술과 정보,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령 404호를 발간한 「양계연구」는 전 세계의 양계산업 발전을 한국 양계에 접목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여, 한국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 환원 작업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1992년 독일 쌀멧의 한국대리점 계약은 250여 동의 쌀멧계

이지 시설을 수입·설치하여 한국양계시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간 다른 사업에 손대지 않고 오직 한국의 양계산업에만 전념해오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를 비롯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특란 한 개의 단백질 함량은 6.5g입니다. 한국영양학회 2020년 권장기준에 의하면 15~18세 남자는 1일 55~65g, 75세 이상은 50~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 수유부는 65~80g이 소요된다고 하며 본인의 실제 경험으로 볼 때 계란을 매일 3~5개씩 섭취하여도 좋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세포가 발육 중인 유아, 질병 회복중인 환자, 치아가 안 좋은 사람에게 계란은 필수 식품입니다.

익힌 계란의 생물가(BV, 소화흡수율)는 96~100%인데 반하여 쇠고기는 76%, 쌀은 75% 정도이므로 계란은 비교적 우수한 식품에 해당합니다. 1일 계란 2개만 먹으면 성인의 1일 비타민 필요량의 20%, 철분 요구량의 26%, 단백질 요구량의 20%를 충족할 수 있으며, 10가지 필수아미노산 중 7가지를 충족시킵니다. 특히 계란을 하루 2개만 먹어도 노인의 루테인 결핍에 의한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영양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래 식량자원 1순위가 바로 '계란'입니다. 산란 사료요구율이 1.8로 축종 중 가장 우수하고, 연간 수당 100여 마리의 빠른 번식력, 오줌을 별도로 배설하지 않고 계분과 함께 배설하는 친환경성 등으로 산란계는 앞으로 매우 효율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계가들은 한국인의 영양을 위하여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국내 계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한편, 한국인의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2001년 185개, 2010년 238개, 2020년 280개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409개, 일본 337개에 비해서는 덜 미치는 수준으로 앞으로 국내 계란 소비량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국내 양계 사육 농장은 무창계사 시설, 신형 계분처리 시설 등 환경공해를 없앤 시설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신형 양계장을 설립해 전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는 전국의 산란계 사육수수 7,500만수의 약 50%이상이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AI 발생으로 인한 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 양계산업의 앞날에 대해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첫째, 계란 품질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통에 관한 법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계란품질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기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계란 무공화' 로고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넷째, 정확한 국내 초생추 생산수수의 통계와 다섯째, 정확한 종계 초생추 입추 통계가 수집·공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존하는 산란계 수수 그래프와 난가 전망 예측 모델을 새롭게 개발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더욱 효과적인 AI 예방대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곱째, 계분제품 생산기법, 양계가가 활용 가능한 '한국계분제품' 법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실행한다면 한국 양계산업의 앞날이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월간양계 창간 54주년을 맞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선 월간양계 창간 54주년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월간양계는 1969년 11월 서울대학교 오봉국 명예교수님께서 창간한 이래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매달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잡지 발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월간양계가 54년간 국내 양계산업 역사를 함께 해 온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만 3년간 월간양계 3대 편집위원장으로 지내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정보를 시기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습니다. 당시 편집위원으로 강세춘, 김순재, 김인식, 김정웅, 김정인, 김지태, 신정일, 신정재, 원송대, 임병규 사장이 함께 활동하면서 월간양계 발간에 심혈을 기울여 편집방향을 논의하고 참여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전문지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편집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셨던 농가를 비롯해 학자, 연구가, 기업가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평생을 월간양계지 발간에 공헌해 오신 연구자들과 실무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직 국민 영양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v@hanmail.net

